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살아계신 주 / Living Hop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Worthy	다같이
대표기도		정재인
*성경봉독	약 2:14~17	성지혜
말씀	죽은 믿음 vs 산 믿음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예수 닳기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동은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예수 닳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닳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닳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닳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닳기를
예수만 닳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닳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닳기를 내가 원하네

죽은 믿음 vs 산 믿음 (약 2:14~17)

14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벙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계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뽑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과 행실이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다른 예로, 여러분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평소 불편한 사람이 보여서 마주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느끼시나요? 위의 예들처럼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도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우리 상식과는 굉장히 차별되는 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롬 1:17, 엡2:8-9) 사실 바울의 설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창 15:6) 바울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는데, 사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에 구원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의 행위는 무효화되었고, 그 이후에는 율법의 정신(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만 요구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4절에서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의 주장과 정 반대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바울이 말한 행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친 행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좋은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함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바울조차도,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인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앞으로는 ‘산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로 바꿔야 합니다. 산 믿음에는 믿음과 행함이 모두 있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17) 그래서 그 믿음의 진위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하다 보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책임감과 노력이 너무 소홀해진 경향이 현대 교회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복음에 집중합시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는데 가슴이 떨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결과를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살아 찢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축음이 너무나 참혹해서 감히 요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축음이 너무나 필요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죄송하면서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진정으로 wholistic 하게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완전히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내 삶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내신 표본이십니다. 겸손과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동시에 가장 능력있는 삶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병자와 약자, 고아와 과부, 어린이와 여인, 세리와 죄인, 나병환자와 이방인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서는 머리 돌 곳조차 없이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살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베푸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새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이런 삶을 사셨기에 나도 이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산책

죽은 믿음은 이런 감동이 메말라버린 믿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wholistic 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논리 연산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몫이고, 나는 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이해는 하나 예수님과 하나됨까지는 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따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분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은 전혀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은 한 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닮기로 결심한 사람치고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 죽은 믿음은 철저히 자기 분위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가치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산 믿음의 증거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기준을 ‘예수님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볼 때, 내 믿음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2. 최근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거나 눈물을 흘린 경우가 있나요? 내 상태에 대해 나눠주세요.
3.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원하지만 잘 모르겠고, 경험도 없어 막막하신 분들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혹은 목사님과과의 일대일 만남을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12-300-5877)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싱어, 건반,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졸업 축하

- 고현이, 김유리, 김유진, 김장명, 김하얀, 이나현, 장한승, 정혜원,
조민영

전교인 구약 통독

- 이번주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10장

2024년 신약성경 통독자 축하

- 오경석, 이중원, 유건이, 조민영

환송

- 최민우 형제님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